

문예시대

THE AGE OF LITERARY ARTS



素峰 申仁澈 畫『동백』

시가 있는 고향 / 박 송 죽
 사색의 창가에서 / 이 해 주
 발 행 인 칼 럼 / 배 상 호
 문 예 포 커 스 / 진 경 옥
 자 전 적 에 세 이 / 문 병 란
 이 계절의 시인·수필가 / 최원철 · 최순덕
 미니시집시리즈 / 권태원 · 장기연

제2회 문예시대 문학상 평론 / 김천혜
 소설 / 이동희
 제2회 아카데미 문학상 수필부문 / 이병수

제12회 문예시대 작가상
 시 부 문 / 김명옥 · 김검수 · 차달숙
 수필부문 / 송명화 · 오기환
 시조부문 / 손영자 아동문학부문 / 공재동

제6회 해외동포문학상
 연변작가협회 / 시부문 / 姜孝三

제6회 한국가람 문학상 배계선
 장백산세계문학상수상 시부문 / 정원식

제59회 신인문학상 당선
 시부문 / 김헌식 · 박성희 · 이재익 · 주화자
 시조부문 / 양향숙

신작시·시조 곽현의 외
 신작수필 강규인 외 단 막 극 오인철

그대 영혼에 꽃잎을 지피며



시인 박 송 죽

1958년 <보라빛> 시집을 상재한 후
고 김춘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시학> 천료

■ 수 상

- 1991년도 세계시인상
- 1994년도 부산여성문학상
- 1998년도 부산문학상
- 2000년도 부산시인상
- 2006년도 가톨릭문학상

■ 약 력

- 부산여류문인협회 회장 역임
- 부산여성문학인회 회장 역임
-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 부산시인협회 부회장 역임
- 가톨릭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시인협회 회원
-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
-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한국가톨릭문인협회 회원
- 세계시인협회 회원
- 동북아시아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 길 동인
- 수필 부산 동인
- 전직 경상남도 공무원
- 부산시 여성정책자문위원
- 부산시 위민실

열다섯번째

雲涯 朴松竹 詩集

그대 영혼에
꽃잎을 지피며

가장 슬플 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큰 위안이 되어
아픈 마음 빈자리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도시출판 동아기획

추억 수첩

雲涯 朴松竹

발목까지 적시는 안개 짙은 새벽길을 걸으며
숨죽인 발자국 소리로
더듬어 찾아 왔던 이승의 젖은 새벽,
나는 그때
초원의 푸른 언덕에서
생명의 눈부신 빛을 보았지,

그 생명의 빛 속에 소금기 저린 돛바늘로
사랑으로 생명의 그물을 꿰매시던
내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마디에서
생 비늘 퍼덕이는 생명의 동해 바다가 출렁이고
그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지평선을 나르는 물새로 퍼덕였지,

그러나 세상 바깥 두리번
찢긴 날개 퍼덕이며
날마다 요란한 내 헛기침 소리.
금간 시대의 난간에서서
어둠 뒤에 더 큰 어둠을 심으며
환원되지 않는 아픔으로
썩틱울 수 없는 시간 속에
아픈 자국만 굵게 남기고 생명의 한 획을 긋고
유성처럼 사라져간 어머니의 무덤 풀 검버섯 나는
나이로 예 서 있지,

무서리로 내리는 아픈 시대를 업고
일어서는 빛을 위하여
깨어나는 빛을 위하여
이 어둠의 절망을 가르는
그대 가까이
그리움에 흔들리는 새벽,
푸른 눈물로 출렁이는 기도로 서 있지.

등 굽은 나이에 껍질을 벗으며
예 이렇게.



雲涯 朴松竹

1958년 처녀시집 상재. 1978년 <현대시학> 고 김춘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천료
수상 세계시인상 부산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부산시인상 가톨릭문학상 본상
시집: <눈뜨는 영혼의 새벽>외15권 수필집 <사랑하므로 아름다워라>외 다수
칼럼집 <생명의 원천 그 절대적인 사랑>